

# 파키스탄 핵 지휘부 소집...인도에 보복 다짐

인도, 카슈미르 무슬림 공습  
무장조직원 300여명 숨져  
핵보유국 충돌 전운 고조



26일(현지시간) 인도 공군의 공습으로 크게 훼손된, 파키스탄 발라코트 지역 산림 파괴 현장.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파키스탄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가 접경지대를 넘어 파키스탄 지역을 공습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26일 새벽(현지시간) 단행된 인도 공군의 공습에 보복을 다짐하고 자국의 '핵 지휘부'를 소집했다. 인도 공군기들은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지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파키스탄 영내 무슬림 테러조직 캠프를 공습, 파괴했다. 인도 공군의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가 동원된 이날 공습으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쪽 약 190km 떨어진 발라코트 마을 부근 무슬림 무장 조직 캠프가 폭격을 받았으며 인도 정부 관리들은 300여명의 무장조직원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 관리들은 이날 새벽 공습이 2주 전 발생한 자살테러 공격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고위 안보 각료회의를 주재한 후 선거유세장으로 향해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총선을 수주일 앞둔 모디 총리는 카슈미르

테러 공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압박받고 있다. 인도 공군의 공습 이후 인도 내에서 '자축'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칸 총리는 모디 총리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쟁

을 무릅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칸 총리는 파키스탄은 자국이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파키스탄의 핵전력을 관할하는 국가 지휘부를 소집했다. 27일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인도가 또다시 이기적이고 무모하며 가공의 주장에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동은 (인도 측이) 선거 정국에서 국내용으로 감행한 것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통제선 사이에 두고 발표하는 잦은 무력충돌을 빚어왔으나 이날 새벽 발생한 인도 공군의 공습은 통제선을 50마일(약 80km) 이상 넘어 명백한 파키스탄 영토를 공격한 것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월스 센터의 마이클 쿨먼은 더타임스에 이번 공습으로 두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간 대립이 새로운 불안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캐나다 빈곤층 감소...아동 빈곤 많이 줄어

지난해 9.5%로 전년 10.6%서 1%P 이상 개선

캐나다의 빈곤 계층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6일(현지시간) 빈곤 인구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정부가 정한 빈곤 기준선 이하의 하위 계층이 총 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 전년도 10.6%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빈곤 개선 추이가 꾸준히 이어져 조사 기간 빈곤 아동층이 전체 아동의 9%에 해당하는 62만2천 명으로 전년도 비율 11%인 75만5000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수년 사이 빈곤 아동은 2012년 100만명으로 전체의 15%를 기록한 이후 2015년 90만 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연합뉴스

# JP모건 CEO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에 불황이 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26일(현지시간) JP모건 연례 투자자 설명회에서 "우리는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황을 예견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해 대단히 조심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이먼 CEO는 "불황 대비 계획이 지점 구축, 마케팅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반대로 우리는 불황을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지점망 등을 구축하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지난해 달성한 유행 자기자본 수익률 17%를 향후 3년의 중기 수익성 목표로 유지했지만, 최근 수년간 보였던 낙관론에서 다소 변화를 시사했다. 매리엔 레이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이번 (경기) 사이클에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하며 세계 경제성장률도 안정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도 "최근 기업 실적 저하로 경기후퇴 지표들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JP모건이 여러 부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향후 금리와 미국 경제가 기업이익 목표치를 끌어올릴 만한 지지력을 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불법 금광 붕괴 수십명 매몰

인도네시아 솔라웨시섬 북부의 한 불법 금광에서 경도가 무너져 인부 수십명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BP)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전날 오후 9시께 북(北)솔라웨시주 불리양 동은도우 군(郡) 몰리안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도포 푸르위 누그로호 BNBP 대변인은 "작업 중 경도 내의 기동과 지지대가 무너졌다. 지반이 불안정한 데다 좁은 지역에 다수의 경도가 밀집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너진 경도에서는 중경상을 입은 인부 13명이 구조되고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재난 당국은 많게는 60명의 인부가 아직 경도 안쪽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경도 내에 인부들이 몸을 피해 생존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선 주민들이 무허가로 광산을 개발하다 전문 부속이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잦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허가 광산 개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지이거나 가난한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의 묵인 속에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日동북지방 앞바다 30년내 규모 7급 대지진 가능성 90%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호쿠(東北) 지방 앞바다에서 향후 30년 안에 규모 7급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예측이 일본 지진조사 당국으로부터 나왔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태평양 연안 지바현-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향후 30년 사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조사해 전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동호쿠 지방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0~7.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0% 이상이었다. 또 인근 미야기현에서 규모 7.0~7.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90%, 규모 7.9의 지진이 생길 확률은 20%였다.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0~7.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각각 50%와 80%로 예상됐다. 규모 7급 지진은 높이 10m 정도의 지진해일(쓰나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4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 지진의 경우 28명의 사망자를 낳은 바 있다. /연합뉴스



美 중서부 북쪽지방 폭설 미국 중서부 북쪽지방을 강타한 강추위 속 폭설로 2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오와토나 인근 주간 고속도에서 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눈 구덩이에 빠져 있다. /연합뉴스

# 美당국, IT 공룡들 독점·잠자미 조사할 전담반 결성

구글·페이스북 등 감시 강화 FTC는 전담반을 통해 IT업계의 합병 과정도 조사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을 해쳤다고 판정을 받는 합병은 백지화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IT 대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조사이먼스 FTC 위원장의 의지가 이번 조치에 반영됐다고 해설했다. 경제 체제가 데이터를 토대로 이미 급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우월적 위상을 누리는 미국 IT기업들을 겨냥해 일찌감치 적극적

인 반독점 조사를 실시해왔다. 미국 의원, 법률가, 경제 전문가, 정책 활동가들도 오래전부터 소홀한 관리·감독을 비판해왔다. '공룡'으로까지 불리는 IT 대기업들의 우월적 위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에 대한 공격적 제재를 옹호하는 미국 오픈마켓연구소의 매트 스톨러는 FTC 전담반이 유명무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